

「NHI-Live」발간 기사 목록

vol.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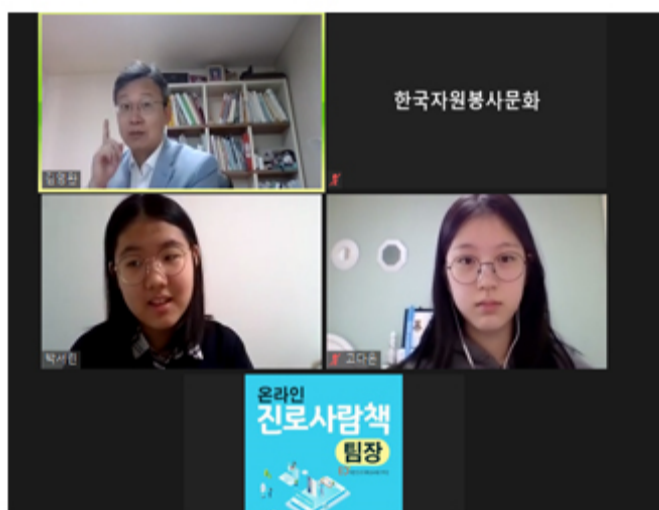
구성	주요내용
NHI News(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중·고교생 대상 진로 상담 첫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정책과정 교육생-서울지역 등 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서울대,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글로벌 공공 인적자원(HR) 컨퍼런스 온택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대응역량 강화해 뉴 노멀 시대 이끌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인력관리 인사 담당자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미래 대응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러시아 등 12개 기관 고위급 담당자 모여 NHI HR 리더스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 협상 전문가 양성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협상 담당자 대상 실습·체험 중심 2020년도 국제협상과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잔연방대학교와 공직 인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인재개발 역량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불확실성 시대, 민첩한 대응역량 키워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학술대회' 첫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기 고위정책과정 64명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상 병무청 최규석 국장
NHI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이끄는 전략, 한국판 뉴딜
기 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고위공직자, 중·고교생 대상 진로 상담 첫 실시

고위정책과정 교육생-서울지역 등 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 진행

-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최초 실시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을 15일부터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진로 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과 전문가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 양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경험 및 폭넓은 지식을 나누고 청소년의 미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 국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고위정책과정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연 1회 43주에 걸쳐 국정철학 및 공직가치, 정책전문성, 리더십, 글로벌 경쟁력 등 종합적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현재 64명이 수강 중이다.
- 이번 온라인 진로 사람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이나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위 공직자와의 실시간 온라인 만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 10/15 ~ 16 온라인 진로 사람책 실시 사진 >



외교관이 꿈인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 실시 현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인기가 많은 보건복지부 현장

- 고위정책과정 교육생들은 새한국자원봉사문화를 통해 진로 상담을 신청한 서울지역 등 중·고등학생 200여명과 여러 개의 소규모 조를 이뤄 촘촘한 진로 상담을 제공했다.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이 현실 속 상황과 환경, 미래 변화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언해 주고,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탐색함으로써 고위직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 국가인재원은 앞서 지난 6월 새한국자원봉사문화와 연계해 중·고등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 상담을 시범실시 했으며, 당시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효과적인 소통관계를 이끌어 냈다.
 - 상담을 맡았던 고위공직자 A 씨는 "비대면 온라인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온라인 상담에 참여한 학생 B 군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체험이 미래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6월에 시범 실시한 온라인 진로사람책 >



학교에서 참가중인 학생들



온라인 진로 사람책 시범 실시 현장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과정 중 하나인 사회공헌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겼다"면서 "이번 활동을 토대로 서울 뿐 아니라 타지역,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 중·고교생 대상의 온라인 진로 상담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서울대,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와 교육 품질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양 기관은 각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참여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20일 서울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협력분야는 ▲교수학습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기자재 및 교육과정·연구시설 등의 상호이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지원 및 우수 교수요원 간 교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개설 교육과정 참여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활용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각 기관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역량개발 전문성 및 노하우 등 교육기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 교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 국가인재원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선진 교수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생 참여 중심의 교육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 서울대는 국가인재원의 리더십향상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행정 관리역량 및 리더십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필요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향과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 글로벌 공공 인적자원(HR) 컨퍼런스 온택트 개최

— 미래 대응역량 강화해 뉴 노멀 시대 이끌어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 공공 인적자원(Human Resources)부문의 미래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와 인재개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좌: 개회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우: 축하 동영상 인사혁신처 황서중 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각국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학계 인사 등 국내외 HR 전문가 약 3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제 컨퍼런스 '2020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를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온택트(On-Tact) : 온라인(On)과 연결(Contact)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

'공공 HR, 미래를 품다(Public HR, Embrace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기조세션과 3개의 세부세션이 마련되었다.

호주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앤드류 포저(Andrew Podger) 호주국립대 교수, 제임스 페리(James Perry) 인디애나대 석좌교수, 타피오 안틸라(Tapio Anttila) 핀란드 혁신기금 시트라 부대표 등 해외석학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좌: 기조연설 I 앤드류 포저 호주국립대교수 겸 전 호주인사위원회 위원장>
<우: 기조연설 II 제임스 페리 미국인디애나대 석좌명예교수>

국내에서는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기조세션 좌장을, 문명재 연세대 교수,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실장이 세부세션 좌장을 맡았으며, 이찬 서울대 교수, 박정호 상명대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영렬 인재개발과장, 조훈현 국가인재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좌: 기조대담 고려대 최흥석 교수, 우: 기조세션 전경>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국가인재원장>

기조세션에서 앤드류 포저 교수는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의 국제적인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기구간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데이터 관리 등에 있어서의 호주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설명했다. 제임스 페리 교수는 '공직 내 지속적 열의(Passion)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를 주제로 공공부문이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이끌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봉사 동기, 채용과 선발, 업무 환경의 구축, 공직 입문자의 적응, 소통과 영감에 기반한 리더십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부세션에서 이찬 교수는 미래를 위해 조직 내 세대간의 간극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박정호 교수는 미래 정부기능을 위한 고도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정책 변화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세션 I 발제 : 서울대 이찬 교수, 상명대 박정호 교수>

박진 교수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미래예측 역량 등 실행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틸라 부대표는 시트라가 예측하는 메가트렌드와 코로나 이후의 전망, 기술과 디지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 II 발제 :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타피오 안틸라 핀란드 혁신기금 시트라 부대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의 HR사례도 소개되었다.

인사혁신처 오영렬 인재개발과장이 '뉴 노멀 시대, 공공 HRD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사혁신처의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했으며,

조훈현 국가인재원 교수는 '미래지향적 공직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국가인재원이 연구하고 있는 인재개발 모델을 소개했다.



<세션 III 발제 : 인사혁신처 오영렬 인재개발과장, 조훈현 국가인재원 교수>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비접촉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내외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 등 2개 국어로 유튜브 생중계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 오픈 챗(Open chat) 방도 제공되었다.

* 오픈챗(Open-Chat) :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HR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재원은 글로벌 공공 HR 허브로서 세계 각국의 HR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다.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전수

— 행정인력관리 인사 담당자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도네시아 행정인력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 인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인사 주무부처인 행정개혁부 요청으로 개설됐으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인사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사진

교육 과정은 인도네시아 중기국가발전계획인 '공무원인사 그랜드 디자인 정책'의 주요과제인 문제점 해결안 도출과 담당 공무원 인사정책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 세계적 인사혁신 동향 ▲국제 인재개발혁신 동향 ▲한국 정부혁신 전략 ▲한국 공무원 인사혁신 사례에 이르는 폭넓은 논의와 공유의 장이 제공되었고, 정책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합리적 성과관리 제도설계' 등 두 개의 정책사례를 기반으로 관리자 역량개발교육은 역할극 등 참여형 학습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수료식

참가자들은 본 과정을 학습하며 인사행정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공무원 채용, 경력개발, 성과관리, 연금제도 등 인도네시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실질적 결실을 얻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전략을 짜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협업과 팀워크 역량을 개발 시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교육기법으로 진행한 역량개발교육이 특히 인상 깊었다."는 참가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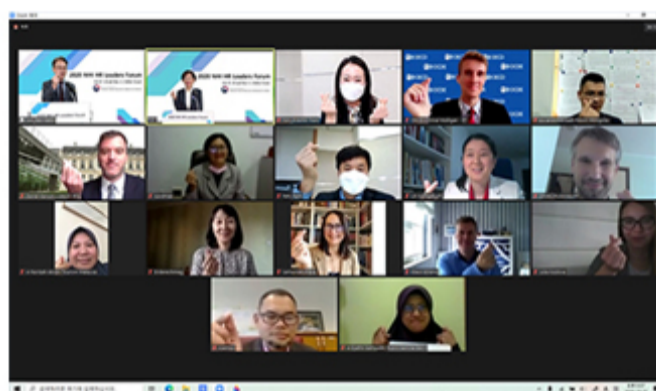
수료식 단체사진

<https://youtu.be/WsUsVoadgRU> 에서 인니 행정관리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 활동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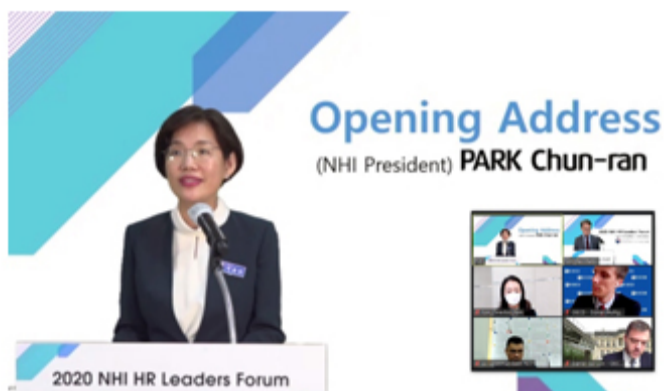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미래 대응전략 모색

영국, 러시아 등 12개 기관 고위급 담당자 모여 NHI HR 리더스 포럼 개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시대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미래발전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27일, 29일, 11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 12개 기관, 14명의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위급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국가인재원 인적자원 전문가 화상 토론회 (NHI HR 리더스 포럼)'를 개최하였다.



개회식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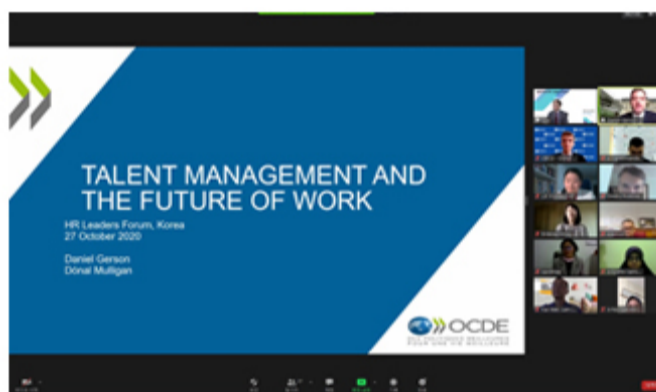


원장님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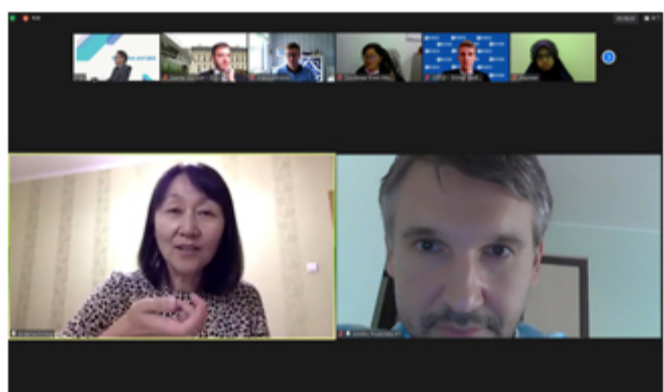
2013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토론회는 각국 정부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인사담당자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전략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하는 국제 협력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 발전 방향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영국, 러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이집트 등 국가인재원과의 주요 협력국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인재개발 고위급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재개발 경험과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열띤 공론의 장이 되었다.



OECD 사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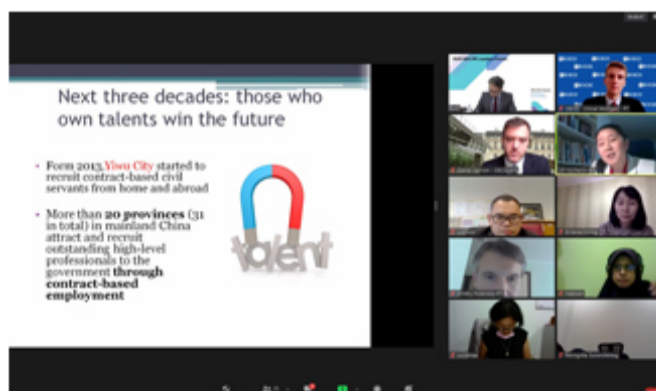


참가자간 토론

올해 토론회는 주제별로 구분해 총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27일 진행된 1일차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국, 러시아, 몽골의 발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공무원 인재개발 사례와 공직윤리 강화 등의 논의를 진행했고,

29일 2일차에는 유럽연합, 콜롬비아, 러시아, 호주, 이집트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의 역할, 정부 신뢰 구축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개발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미주개발은행,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인재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사례를, 미주개발은행에서 변화의 시대 공공인사관리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포럼이 마무리 되었다.



중국 사례발표



토론 및 Q&A

포럼 참가자 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온라인을 통해 지혜와 해법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3일 동안 높은 참여도와 활발한 토론은 온라인 포럼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미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에도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전문가들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지혜과 경험을 나눠 공공인재개발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인재원은 2021년도에도 공공 HR 분야 교류 플랫폼으로서 우리원의 역할 및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HR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HR 리더스 포럼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38회 공공HRD 콘테스트 개최 (11.26~11.27)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지난 11월 26~27일 진천 본원에서 「제38회 공공HRD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 38회째를 맞이한 「공공HRD 콘테스트」는 공공 부문 우수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등을 교육훈련 기관 간 공유, 확산하기 위한 경연 대회이다

· 특히, 올해 국가인재원은 '참여', '혁신', '소통'에 바탕한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공공HRD 콘테스트」를 대폭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 먼저, 일방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참여 실습형 교수학습모델이 발굴·확산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 새로이 공직혁신 분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적극행정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HRD)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또한,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누적조회 약 4,000회, 12.1기준)를 도입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선 교육기관에 콘테스트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자 했다.

· 주요 수상자로는 경기도소방학교 김남욱 소방위, 국방대학교 김성훈 교수가 각각 대통령상, 총리상을 받았다.

- 김남욱 소방위(전문직무 분야)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진압 현장체험 교육'을 선보여 언택트 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우수 교수학습 방안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성훈 교수(공직혁신 분야)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5개 전략을 행동경제학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친숙하게 강의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뽑혔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제훈련 인증교관 양성과정'을 교육 수요자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하고,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기법을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 블렌디드 러닝 :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것

· 연구개발 분야는 '함정 함해요원의 행동오류 식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해양경찰교육원 장은진 경위가 해상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 함정·함해 교육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박춘란 원장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듯이, 이번에 발굴된 우수 교육사례가 공직자와 정부·공공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 삶의 더 큰 행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이 교육훈련 분야 우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제38회 공공HRD콘테스트 본선대회 개요

· (추진목적) 공공HRD콘테스트 3개 경연분야(교수학습·연구개발·교육과정)의분야별 순위 결정 및 우수자(기관) 선정·시상 등

* 연혁 : 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하여 올해 38회째를 맞이함

· (일시 및 장소) '20. 11. 26.(목) ~ 11. 27.(금) 2일간, 진천본원 대강당(2층)

· (온라인 중계) 유튜브 '인재키움TV'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

· (주요내용) 발표 (출전자), 분야별 우수자(우수기관) 선정·시상

- (예선출진 현황) 해양경찰교육원 등 37개 기관, 총 56명
* 교수학습분야 29명(공직혁신 9, 전문직무 20), 교육과정분야 20개 기관 연구개발분야 7명
- (본선 진출현황) 18개 기관, 총 24명
* 교수학습분야 13명(공직혁신 5, 전문직무 8), 교육과정분야 7개 기관, 연구개발 4명
- (시상인원) 총 26명(기관)
- 본선 대회 경연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 등 24점 수여
- 공공HRD 및 교육기관 교류·협력 우수기관에게 특별상(공로상) 2점 수여

참고 2 제38회 공공HRD콘테스트 수상자·수상기관 명단

· (교수학습분야) 수상자 : 총 13명

① [공직혁신분야 : 5명]

연번	훈격	기관명	성명	제목
1	국무총리상	국방대학교	김성훈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5G
2	인사혁신처장상	공군교육 사령부	문성주	나는 공군인이다 (자기효능감·훈육방식의 변화)
3	인사혁신처장상	공군교육 사령부	박지민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의무 (인권을 제일로)
4	국가인재원장상	중앙경찰학교	조성환	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무너지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자)
5	국가인재원장상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유재기	소통으로 거둔다는 청렴

② [전문직무분야 : 8명]

연번	훈격	기관명	성명	제목
1	대통령상	경기도소방학교	김남욱	생명을 살리는 숨겨진 신호 (BACKDRAFT 현상에 대응하라)
2	인사혁신처장상	중앙경찰학교	옥정석	"레드맨이 왔다." (신체반응 시뮬레이션)
3	인사혁신처장상	중앙경찰학교	박희영	인지집중 이것이 조건이다
4	국가인재원장상	육군종합 행정학교	임지수	기록하여 기억하다! (기록의 이해와 중요성)
5	국가인재원장상	중앙경찰학교	장혜선	한국방문의 첫 설레임! 관광 경찰이 책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저해 불법행위 단속활동)
6	국가인재원장상	해양경찰 교육원	권기수	STOP RIGHT NOW (지금 즉시 정지하라)
7	국가인재원장상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오관석	생명을 살리는 배연 (연기를 배출하라)
8	국가인재원장상	전남소방본부	곽문희	심장을 살리는 세 친구 (수동·자동심폐소생술 그리고 AED)

· (교육과정분야) 수상기관 : 7명

연번	훈격	기관명	제목
1	대통령상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제훈련 인증교관 양성과정 (전략적·체계적 교육으로 관세외교 전문가 양성)
2	인사혁신처장상	LH 인재개발원	「잡 스타트, Job-Go과정」 (RP-ISD 모델을 활용한 잡 스타트, Job-Go 과정)
3	인사혁신처장상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역학조사관 양성기본교육 (K-방역의 핵심인력,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현장실무 실습기반 전문교육)
4	인사혁신처장상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코로나19 대응귀농귀촌교육 특별기획과정개발 및 운영
5	국가인재원장상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설계 VE 과정(공공건설사업의 가치를 높이는「설계 VE과정」)
6	국가인재원장상	산림교육원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산림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 확산을 위한 산림레포츠 지도사 양성과정]
7	국가인재원장상	농식품유통교육원	푸드플랜 실행전략 수립과정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기법(PBL)을 적용한 푸드플랜 실행전략수립과정)

· (연구개발분야) 수상자 : 4명

연번	훈격	기관명	성명	제목
1	국무총리상	해양경찰교육원	장은진	함정조함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임해양경찰의 행동오류에 관한 연구 (함정중를 회피행동을 중심으로)
2	인사혁신처장상	강원도소방본부 평창소방서	김용기	소방펌프차의 방수특성에 대한 실증시험과 수리적 해석
3	국가인재원장상	경기도울곡 교육연수원	김홍복	지방공무원 장기연수 「경기교육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평가지표 개발연구
4	국가인재원장상	해양경찰교육원	신총화	초심자 권총사격시의 새체지표변화에 관한 연구 (경질간부후보생 사격특성을 중심으로)

· 특별상(공로상) 수상기관 : 2개 기관

연번	훈격	기관명
1	인사혁신처장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국가인재원장상	해양경찰교육원

정부 내 협상 전문가 양성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통상·협상 담당자 대상 실습·체험 중심 2020년도 국제협상과정 실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국제협상과정'을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운영하였다.

고강도 체험식 교육을 통해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정부의 대외 경쟁력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된 국제협상과정에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364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료했다.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대부분 영어(80%)로 진행하였고 양자·다자협상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사례학습, 협상경진대회 등으로 편성·운영하여 참가자들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자 및 다자협상 실습은 협상을 전공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외국인 국제대학원생들과 합동으로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국제협상 실전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협상실습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확보와 보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제로 백신 우선수혜국 결정과 분담금 등 안건들에 대해 당사국(WHO, Canada, Korea, Norway, South Africa)간 다자협상과 △미국의 협의체(COVAX Facility) 가입을 설득하는 양자 간 협상경진대회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본 과정의 체계도이다.

《교육과정 체계도》



체험식 훈련을 통한 협상전문가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양자 및 다자 협상실습과 경진대회를 통해 교육생들은 다양한 협상과정을 체험하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교수진(4명)의 심층 지도를 통해 협상 현장에서의 실전 적응력을 최대화하였다.

5일간의 강도 높은 체험식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실습이 많아 다소 부담스럽긴 하였지만 실력과 열정을 갖춘 강사진, 국가인재원의 세심한 교육운영 덕분에 협상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다음은 수료생들의 수료소감이다.

《수료 소감》

(경기도 강**) 교육 참여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전화나 문자,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셔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가인재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대면교육 못지않은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자료와 안내를 제 때 제 때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김**) 실습이 많아 두렵기도 했지만 이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고 연습하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자협상 시에 서강대 대학원생들이 F/T로 참여하여 더 높은 수준의 모의 다자협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점도 참 좋았습니다.

(경기도 오**)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강도 있게 진행하다보니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1주간 안에 영어 표현을 향상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토론과 협상까지 진행하는 데는 솔직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는데 대한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과정 설계에 무척 많이 고민하시고 공을 들이신 것이 보입니다.

(교육부 오**) 국가인재원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교육을 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과정이 매우 잘 설계되었고 강사들도 모두 뛰어난 실력과 열정으로 강의에 임해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정을 이끌어 주신 담당자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육이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자칫 매끄럽지 않을 수 있었을 과정을 친절하게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카톡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과 미국 대선 이후 국가·지역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의 협상력 등 국제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 과정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정책에 맞춰 국제업무기본과정, 국제회의과정, 국제협상과정 등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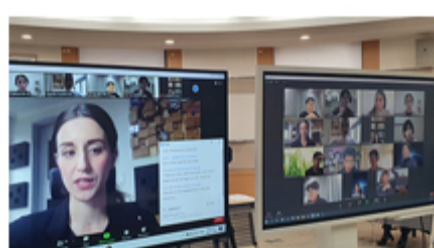
입교식 장면 (11.23, 월)



협상표현 강의 (11.23, 월)



협상스킬 강의 (11.24, 화)



다자협상 실습 (11.25, 수)



협상경진대회 (11.27, 금)



협상경진대회 피드백 (11.27, 금)

참고 2020년도 국제협상과정 교과목 편성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사전학습	- 협상이론(자료) 및 협상관련 영상자료	
Module 1 협상이론	- Basic Skills for Negotiations (양자 및 다자협상 기술)	2
	- Language Skills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협상 표현)	3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 Contracts (국제협약서 이해)	3
Module 2 협상실습	- Simulated Bilateral Talks (양자협상 실습·시연) ※ 서강대 국제대학원생합동	3
	- Simulated Multilateral Talks (다자협상 실습) ※ 서강대 국제대학원생 합동	7
	- 국제협상 단계별 준비과정 체험 (실무 부처)	2
	사례학습	
	- 국제협상 경험담(전직)	2
	- 협상사례 및 시사점(현직)	2
Module 3 협상 경진대회	- Orientation to Negotiation Competition(1h) (경진대회 오리엔테이션)	3
	- 협상경진대회 준비(2h)	
	- Negotiation Competition_Preliminary (3h) (경진대회-예선)	
	- Negotiation Competition(Final) (1h)(경진대회-결선) - Feedback & Coaching (2h)(피드백 및 코칭)	6
교육운영	- 분임대화(실습준비 및 소통)	4
	- 입교식/교육안내, 과정평가/수료	2

카잔연방대학교와 공직 인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러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인재개발 역량 전수 —

- 대한민국 공직 인재개발 역량이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전수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25일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위치한 카잔연방대학교(총장 가푸로프 일샤트, 이하 '카잔대')와 공직 인재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인재원-러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연방대간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 카잔대는 1804년 설립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며, 타타르스탄공화국 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카잔연방대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와 혁명가 레닌이 수학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 양 기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리더십 개발, 연구개발 등 공직 인재개발 분야 전반에 있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세부 협력내용은 ▲상호 인재개발 경험 및 지식 교환 ▲간행물 및 연구결과 상호 교환 ▲연수단 파견, 전문가·교직원 간 인적교류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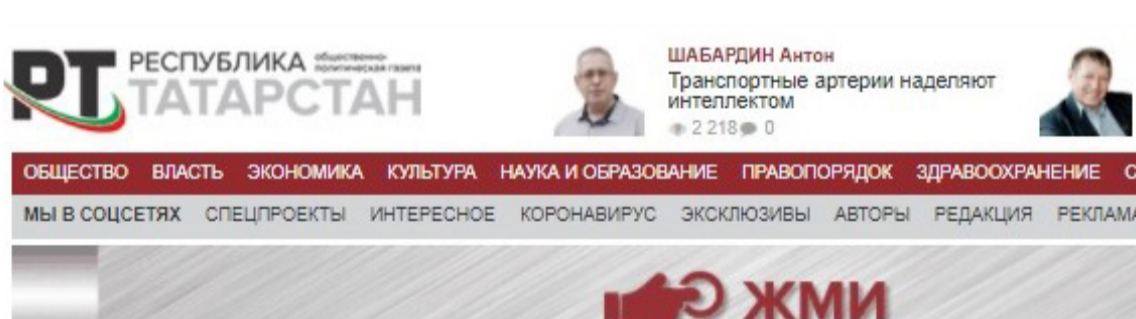


박춘란 국가인재원장과 일샤트 카잔연방대 총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타타르스탄공화국 정부와 카잔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공공부문 인재개발 경험과 지식의 전수, 교육기법과 내용 등의 공유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의 행정혁신과 정책사례 학습 등을 위해 타타르스탄공화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희망하고 있다.
 - 국가인재원은 오랜 외국공무원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카잔대와 면밀히 협의해 타타르스탄공화국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공직 인재개발 역량의 우수성이 러시아 등 주요 협력국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러시아와 주변국을 대상으로 우호적 협력망을 한층 강화해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신북방정책을 지원하고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2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러시아 연방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개발 등 러시아 정부와 지속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온라인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카잔연방대 측 제공



7 декабря 2020 6:04

Главная / Рубрики /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Распечатать

Ключев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артнёр

Опубликовано: 25.11.2020 19:39



Казан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управления персона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NHI)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од эгидой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на церемонии выступ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Президента РТ Асгат Сафаров,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NHI госпожа Пак Чун-рен и ректор КФУ Ильшат Гафуров.

По словам Асгата Сафаров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и Казанским федер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открывает множеств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обоюдного созида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дел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и послужит вкладом в укре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азвитие дублирующих отношений также позволит более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осуществ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оциальной и иных сферах.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Ильшат Гафуров отметил, что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 так же, как и Казан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ведёт активн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NHI прежде всего связан с процессом цифров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рогрессивных методик обучения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Являясь лидером в эт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нет ключев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артнёром для Татарстана.

При подведении итогов церемонии сторонами были высказаны пожелания, чтобы меморандум превратился в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основу для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конкретных соглашений и проектов. Об этом информиру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езидента РТ.

현지 언론 보도(국가인재원-러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연방대간 온라인 업무협약식 체결)

“초불확실성 시대, 민첩한 대응역량 키워야”

— 국가인재원,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학술대회' 첫 운영 —



개회사

·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모색,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친천 본원에서 '초(超) 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념 사진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초로 기획·운영됐다.

- '대한민국의 새 기준(뉴 노멀) : 다른 생각, 다른 미래' 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과 좌담회로 구성됐다.

·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서울대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미래 환경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공공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언했다.



기조강연

- 이어 윤우제 국가인재원 교수의 진행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는 “위기와 재난이 연쇄적, 동시 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시대(블랙 타이드; Black tide)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첩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속의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기반의 미래 경제 환경을 예측·진단함으로써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분야별 산발적 대응으로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관·연·학 및 민간이 함께하는 국가미래전략네트워크(Inational Foresight Network)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담회

·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구루미'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별도 참관자 없이 최소 인원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했다.

- 또한 국가인재원은 오는 2~3일 '미래대응역량향상과정'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공공갈등 이슈 분석 및 전략적 미래예측기법 등을 통해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획·설계 실습이 진행된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례없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면서 “대한민국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예측과 위기변화관리 등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컨퍼런스 개요

· 목 표

- 코로나 19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미래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이고 민첩한 대응역량 향상
- 미래 환경변화의 이해 및 이슈 발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등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능력 강화

· 개 요

- 일시/장소 : '20.12.1(화), 13:30~17:40 / 국가인재원 본원 대강당

- 슬 로 건 : 대한민국의 뉴 노멀, <다른 생각, 다른 미래>

- 운영방식 : 온라인 생중계(온라인 플랫폼 구루미 활용)

- 참석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

· 주요 내용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13:30~14:00	30'	개회식 인트로영상 시청, 국민의례 인사말씀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4:00~15:30	90'	기조강연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 김동욱서울대교수
15:30~15:40	10'	단상정리 및 휴식
15:40~17:40	120'	좌담회 “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진행 : 윤우제 원내교수 패널 : 우천식 KDI 글로벌경제실장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석 KAIST 교수

· 후속 일정

- '미래대응 역량향상 과정(12.2~3, 30여명) 운영

- 전략적 미래예측 기법 등을 활용,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맞춤형 정책 기획·설계 실습훈련 등

참고 2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컨퍼런스 포스터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13:00~13:30	30'	등록
13:30~14:00	30'	개회식
14:00~15:30	90'	기조강연
15:30~15:40	10'	휴식
15:40~17:40	120'	좌담회

온라인 컨퍼런스 (구루미 활용, 사전신청자 대상 접속URL 및 접속방법 별도안내 예정)

주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8기 고위정책과정 64명 수료

— 대통령상 병무청 최규석 국장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12월 9일 고위 공직자의 정책역량과 전략적 리더십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제28기 고위정책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45명과 공기업 임원급 19명 등 모두 64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수료식은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On-Off 병행으로 진행하였다.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원내 간부, 수상자 등이 수료식 현장에 참석했으며, 교육생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수료를 축하하였다. 교육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병무청 최규석 국장에게 수여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국장, 인사혁신처장상에는 신용보증기금 황석병 국장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은 조달청 강성민 국장, 경기도 송재환 국장에게 수여됐다.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식(12.9.)]



[성적 우수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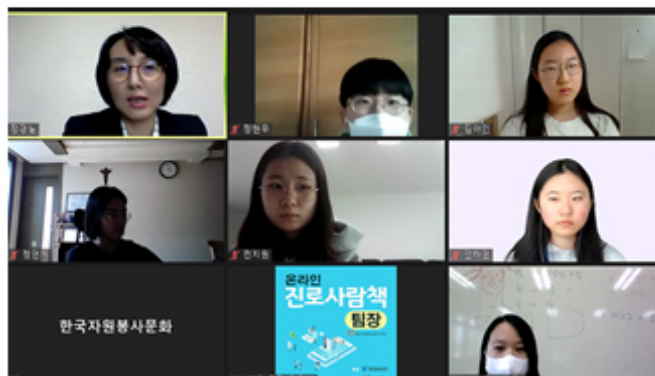


[공로상 시상]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현업에 복귀하는 교육생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역량을 발휘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리더로서 소통과 공감, 다양성, 신뢰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역시 당부하였다.

28기 고위정책과정은 지난 2월에 시작하여 43주 동안 국정철학·정책전문성, 리더십, 글로벌, 인문 분야 등 주제학습, 개인 및 그룹별 정책과제연구, 온라인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모듈 운영으로 공직가치 내재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당초 계획된 교육활동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교육생 상호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측불허의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신속히 도입하여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강의실과 분임실 등 교육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온·오프 혼합(Blended)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생과 인재원의 상호 소통을 통해 '하반기 교육개편안'을 마련하여 팀과제를 기획과제로 전환하여 코로나 맞춤형 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사회공헌활동(10. 15.)]



[기획과제 연구 결과발표회(11. 17.)]

고위정책과정은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리더' 양성을 목표로 1993년에 신설되어 2020년까지 1,5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범부처 간 연구와 국민 및 정책 현장과 함께 정책이슈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고 다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추구할 예정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한 수'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이끄는 전략, 한국판 뉴딜 —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다. 바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하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사업비 58조 2,000억 원 / 일자리 90만 3,000개), 그린 뉴딜(사업비 73조 4,000억 원 / 일자리 42만 7,000개), 안전망 강화(28조 4,000억 원 / 일자리 26만 6,000개) 등 세 개 주축을 중심으로 10대 대표 과제를 수립한 이번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경제 침체 극복과 구조 대전환이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1,000개에 이르는 고용 창출을 달성하고자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이슈는 '경제'와 '환경'



올해 초 등장해 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상은 크게 바뀌었다. 우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비대면 방식을 널리 활용하면서 디지털 혁신이 더욱 앞당겨졌다. 또, 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 변화 위기에 발맞춰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더불어 격변하는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 재편 등에 의해 고충을 겪는 취약 계층이 대폭 늘면서 상생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곳곳에 산재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한국판 뉴딜은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착안했다. 이로써 중앙정부가 114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46조 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01. 디지털 뉴딜_첨단 기술 역량 증대와 비대면 유망 산업 성장의 꿈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꿈꾸며 기술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엔 네 가지 과제가 속해있다. 먼저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사업비 38조 5,000억 원 / 일자리 56만 7,000개)는 ▲국민 생활 밀접 데이터 구축과 활용 목적의 개방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의 공공서비스 기반화와 1~3차 산업 접목 ▲K-사이버 방역 체계 구비 등을 시도한다. 또,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사업비 1조 3,000억 원 / 일자리 9,000개)으로 초중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업 육성(2조 5,000억 원 / 일자리 13만 4,000개)은 ▲스마트 의료와 돌봄 인프라 마련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사업비 15조 8,000억 원, 일자리 19만 3,000개)는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 대응 인프라 관리 체계 ▲도시와 산업 단지의 공간 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의 기초를 닦는다.

02. 그린 뉴딜_온실가스는 낮추고, 녹색산업은 키우고



그린 뉴딜의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해답을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사회다. 따라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30조 1,000억 원 / 일자리 38만 7,000개 창출)을 통해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와 해양, 그리고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형성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사업비 35조 8,000억 원 / 일자리 20만 9,000개)으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생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과 공정한 전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도전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비 7조 6,000억 원 / 일자리 6만 3,000개)은 녹색 선도 유망기업과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연구개발(R&D)과 금융 녹색혁신 기반 등을 구성하고자 한다.

03. 안전망 강화_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사회로



단기 고용 충격 완화와 위기 발생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안전망 강화엔 두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고용·사회 안전망(사업비 24조 원 / 일자리 15만 9,000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과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 등을 시행한다. 또, 사람 투자(사업비 4조 4,000억 원 / 일자리 15만 개)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진행해 취업을 도모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

탄소 중립의 미국·유럽,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 중국... 글로벌 뉴딜의 내일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보를 지켜보는 해외에선 어떤 뉴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까. 미국은

작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서 지난 2008년 이래 지속해서 시행해온 그린 뉴딜과 관련 정책을 일시에 중지해야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트럼프 정권이 막을 내리고, 환경 문제에 호의적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면서 4년간 2조 달러(한화 2,375조 원)를 청정에너지 인프라 설립과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또한, 그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제로화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일명 그린 딜(Green Deal)을 내세워 향후 30년 뒤 27개 회원국을 최초의 탄소중립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최대 1조 유로(한화 약 1,405조 원)를 투자하며,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0~55%로 저감하는 수순을 밟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화석 연료 최대 소비국으로 이름난 이곳은 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을 국내총생산 가운데 약 1.2%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즉, 녹색산업에 연간 약 1,300억 달러(한화 141조 2,450억 원)를 쏟아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2030년까지 매년 3,500억 달러(한화 380조 2,750억 원)씩 예산을 책정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은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위기에 맞서며 경제와 환경을 두루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그 시너지가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인용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http://www.knewdeal.go.kr>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한국판 뉴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중앙일보, 한국판 뉴딜 160조 전례 없는 투자... 文 "190만 일자리 만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509>

머니투데이, EU 1400조·美 2400조...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돈 쏟아붓는 이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012232291424>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인재원은 2020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를
OOO 방식으로 개최했는데요.
OOO은(는)온라인과 연결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OOO는 무엇일까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0.12.4(금) ~ 2020.12.31(목)

응답하기

< NHI Live 9월 퀴즈 당첨자 명단 >

오*석, 권*원, 송*정, 김*진, 허*욱, 이*수, 이*원님
축하드립니다.

